

국립광주박물관 장래 희망은 데이트 맛집입니다

-청춘이여! 광주박물관으로 오라

특별기고

박진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광주박물관은 고민이 있습니다. 박물관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즐겁게 노니는데, 왜 청춘남녀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멋진 전시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예쁜 정원 나들이 제격

2개의 상설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광주·전남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 두었습니다. 신창동의 마한 마을이나 충효동의 조선시대 가마터 등에서 출토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빼곡하죠. 또 소치 허련이나 의재 허백련 화백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서화도 국립광주박물관의 자랑입니다.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특별전은 언제나 흥미롭고요. 연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형 전자 특별전이 광주박물관을 찾아옵니다.

이뿐만인가요? 정원에서 때맞춰 피는 홍매, 백매, 동백꽃, 벚꽃, 자두꽃, 목련, 철쭉, 백일홍, 태산목, 수국, 은목서 등 수많은 꽃과 나무도 박

물관의 매력입니다. 박물관은 따뜻해서 광주에서 가장 꽃이 빨리 피는 곳입니다. 이 말은 곧 SNS, 요즘 대세인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사진 건지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겠죠, 졸사(졸업사진)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정자에 앉아 느긋하게 데이트하는 것도 좋겠죠?

더불어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도 있어요. 지난 설날에는 북주머니 미션 이벤트, 나전칠기 키팅·다식만들기 체험이 열렸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미션’, ‘찾아라! 박물관 속 청이, 달이, 쪽이’, ‘달항아리 마카롱 만들기 등 총 3가지 행사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책 읽는 마법사’ 특별공연도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추석에도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이 모두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올 12월에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중 최초로 도자기 전용 전시관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도자문화관이죠.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3개의 상설전시실(한국도자, 신안해저도자, 디지털 아트존)과 카페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도자실에서는 강진 고려정자,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등 도자기의 제작과 유통, 소비의 과정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로 한국 도자기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진에는 고려시대에 왕실로 납품하던 최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가, 광주에는 고려청자가 분청사기와 백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가마가 여럿 조사되었습니다. 신안해저도자실에는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한 원나라 무역선에 실려있었던 2만 4,000여점의 다양한 도자기 중 엄선한 도자기를 예쁘게, 아주 예쁘게 전시할 겁니다.

또 디지털 아트존에서는 폭 60m의 초대형 파

노라마 스크린에 도자기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주제로 한 고해상도 실감 영상을 입체적인 음향과 함께 감상할 수 있죠. 광주·전남 일대에서는 최대 크기로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영상실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어머어마하다는 얘기죠.

청춘남녀 찾고 싶은 곳 될 것

매번 계속되는 영화관 데이트가 지겨우신가요?

이럴 땐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디지털 아트존에서 실감 영상 한 편 감상하시죠.

매번 비슷한 풍경의 카페 데이트가 지겨우신가요?

이럴 땐 도자문화관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와 함께 고풍스럽고도 감성 터지는 문화유산을 한번 느껴볼까요? 웬지 퓨전 국악이 들릴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NCT 같은 K팝 아이돌 그룹 좋아합니다. 물론 잔나비도요. 장담하건대 무척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유 없이 반짝반짝하고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자문화관이 있습니다. 도자문화관에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반짝반짝하고 영롱하고 뽀얗뽀얗하고 매력적인 도자기가 가득하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청춘남녀들이 반드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 겁니다. 물론 마음이 청춘인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귀 기울어겠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장래 희망은 광주를 대표하는 데이트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환영

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풍부한 전력이다. 호남권 대선공약은 시의적절한 공약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설치한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가 지난달 23일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전남 해역에 처음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기다. 신안 앞바다에는 원전 3기에 맞먹는 3.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산업부의 집적화 단지 지정까지 성공하며 ‘재생에너지 메카’라는 전남의 꿈에 한발씩 다가가고 있다.

목포시 또한 신항만 일원에 해상풍력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지난해 1월 착공했고,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인 베스타스사와 3,000억원 규모의 터빈 생산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상풍력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전남도와 국립목포대학교, 덴마크 기업체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목포시는 해상풍력 산업의 배후기능을 할 수 있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아산·당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로 보내는 44.6km의 송전선로가 지난달 2일 준공됐다. 2003년 건설 계획이 마련된 이후 22년이 걸렸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송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

는 1개 공기업에 불과한 한전에 국가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던져놓고 방치하고 있다.

전남의 전력 공급량은 수요량의 2배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력 계통은 거의 여유가 없다. 신안에서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 역시 송전망이 확충되지 못하면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송전망 확충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비만 쏟아붓고 좌초되고 말 것이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송전망 확충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리고 전남과 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환영한다.

정부 주도의 확고한 정책추진과 목포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수도권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도시 소멸 가속화를 막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굴과 지역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남권 대선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정책 반영을 위해 목포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

사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에서 12건, 전남에서 14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사례도 다양각색이다.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는 외벽에 부착된 한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의 얼굴에 구멍을 뚫은 사례가 있었다. 남구 월산동에서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어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나 벽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

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불법 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어기는 어떠한 행위도 민주 시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처벌 이전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투표장에 나가 표로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성지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금호타이어 화재·대선도 ‘노쇼’ 사기라니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예약이나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악용한 사기 행각까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노쇼 사기는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두 번 울리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광주 61건, 전남 23건 등 84건의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매달 증가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선이나 금호타이어 화재 등을 악용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 20여 명의 단체 식사를 예약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양주를 대신 구매해주면 식사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이 한창인지라 이들의 말을 믿은 식

당 주인은 2,400만 원을 특정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예약자와는 연락이 끊겼다. 사기였다. 대선이 노쇼 사기에 악용된 것이다.

남구의 한 음식점 업주도 금호타이어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보낼 음식이라며 15인분의 음식 주문을 받았다.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해 평소보다 저렴하게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식을 가져갈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 가고 있다며 급하게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방관을 빙자한 노쇼 사기였다.

노쇼 사기가 공무원 등 믿을만한 신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웠었는데, 최근엔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금호타이어나 대선 후보 등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이다. 피해 예방과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낯선 단체의 주문이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쇼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세심한 주의·배려 필요

발언대



안병근

고흥경찰서 농동파출소장

본격적인 봄 영농철이 시작됐다. 바쁜 농작업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도 늘어나고 이로 인해 농기계 관련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진다.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모내기철인 5~6월에 집중돼 있다. 특히 농촌지역 영농 인력이 고령화되고, 영농방식이 기계화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고령의 농민이 홀로 농기계 사고를 당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다.

기계 조작 미숙이나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농경지와 도로, 산길 등이 결합한 농촌지역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주된 유형을 살펴보면 신

체의 전제 또는 일부가 농기계에 끼이거나, 급경사지 및 절개지나 배수로 등으로 추락사고, 농기계 전복·전도 사고, 도로 등에서 농기계 운전 중 다른 농기계 또는 일반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 등이 있다.

특히 일반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하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용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안전수칙은 △안전벨트 및 보호안경 등 보호장구 착용 △운행 전·후 기계점검 생활화 △반사판 부착 및 등화장치 수시 점검 △소매 또는 바지 밑단 조이기(끼임 사고 예방) △음주운전 절대 금지 △도로에서 무리한 추월 지양 및 야간 운전 시 규정 속도 준수 △기분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농기계를 운행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농업경영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안전수칙 준수와 정비점검을 생활화하고, 여유를 가지고 농작업에 임해야 한다.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농기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꼭 실천해서 한 해 농사를 안전하고 풍족하게 일궈 나가길 바란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경제부 (062) 720-1067 사회부 (062) 720-1050 사회2부 (062) 720-1043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진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3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